

아육스부르크로 보낸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편지 분석연구

BD 346(1777년 10월 9일)과 BD 348(1777년 10월 12/13일) -

이성률(안동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면서

서양 음악사에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와 그의 가족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차르트의 가족에 대한 기록과 편지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음악학자들은 모차르트 가족들의 편지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중 일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출판되어 일반 대중들에게도 소개되었으며, 모차르트의 편지들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국내에서도 『모차르트의 편지』(2018)라는 제목으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편지와 그의 가족 편지의 일부가 번역되어 출판되었다.¹⁾ 이런 연유로 간혹 모차르트와 관련된 연구, 특히 편지 연구는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아직은 성급하다. 왜냐하면, 편지 원본에 대한 수집과 인쇄하는 과정은 이미 끝났지만, 편지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깊이 있는 연구는 여전히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1)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편지』, 김유동 옮김 (서울: 서커스출판상회), 2018. 다만 아쉬운 것은 모차르트의 편지를 중심으로 편집된 책이다 보니, 아버지 레오폴트나 어머니 마리아 안나의 편지 대부분이 누락된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주고받는 배경과 과정을 통해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이 책은 아쉽게도 반쪽짜리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에 설명한 것처럼 1777-1779년 사이 볼프강 모차르트와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 약 150여 통 중 이 책에는 약 54통만이 번역 소개되고 있다. 그 나머지는 이 책의 원본 편집자들에 의해 임의로 누락 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뿐만 아니라 소개된 편지들마저 적지 않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전체 정보를 접하기 힘들다. 물론 편지 연구나 일차자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국내 음악학 상황에서 이 저서는 모차르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음악학자들과 전기 작가들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편지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레오폴트 모차르트(Leopold Mozart, 1719-1787)²⁾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 학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관심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집중된 상태에서 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에 대한 연구는 외면받고 있다. 간혹 언급되는 레오폴트 모차르트에 대한 내용도 “비정한 아버지, 어린 모차르트 남매에게 무리한 여행을 강행했던 아버지” 등등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³⁾ 또한 볼프강 모차르트가 1781년 비인으로 이주한 이후 증폭된 부자간의 갈등이 강조되면서, 레오폴트에 대한 편견도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정말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비정하고, 냉혹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어린 볼프강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일찍 자신의 성공을 뒤로하고 오직 자식의 성공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버지였을까?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와 같은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2019년은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탄생한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심포지움 하나 없을 정도로 국내 음악학계는 레오폴트 모차르트에게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첫 번째 이유로는 모차르트와 관련된 연구를 또 해야하는가? 하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레오폴트 모차르트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하기 어려워서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관련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레오폴트 모차르트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 예로, 1777년 9월부터 1779년 1월 사이⁴⁾에 레오폴트 모차르트와 볼프강 모차르트가 주고받은 편지에는 음악사 서술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경우는 모차르트의 전기에 이미 기록되거나 해설되어 있기도 하지만, 레오폴트의 편지는 상당 부분 소외되고 평가절하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편지를 중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볼프강 모차르

2) Johann Georg Leopold Mozart,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 1719년 11월 14일 독일 아우스부르크에서 출생. 1787년 5월 28일 잘츠부르크에서 사망.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Vicekapellmeister), 작곡가, 바이올린연주자, 교육자, 음악이론가. 대표적인 저서로는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연주법』(Gründliche Violinschule)가 있다.

3) 1984년 밀로스 포만(Milos Forman, 1932-2018)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Amadeus)에 묘사된 주인공들의 모습이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영화 아마데우스의 원작은 러시아 작가 푸시킨(Alexander Sergeyevich Pushkin, 1799-1837)의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1830)이며, 많은 내용은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와 비전문적인 과장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

4)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1777년 8월 잘츠부르크 궁정음악가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뮌헨, 아우스부르크, 만하임,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를 여행한 시기임.

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적해 본다. 이를 통해 레오폴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하고, 그의 편지 속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 볼프강 모차르트와 18세기 음악을 알아본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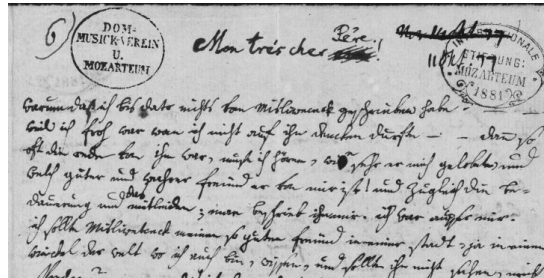
2. 주제의 한정

본 연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1777년 9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잘츠부르크를 떠나 1779년 1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간에 주목했다. 모차르트가 아버지 없이 처음 떠난 여행이었다. 레오폴트는 아들을 혼자 떠나보내며,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직접 연결해 주지 못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가족들의 연주 여행을 직접 기획하고 여행 자금을 만들었으며, 방문하는 도시의 최고 지도자나 영주들과 인맥을 쌓으면서 가족들을 안내했었다. 그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비인 등 유럽 각지를 여행했었다. 그런 그가 1777년에는 건강과 직장 때문에 아들을 혼자 떠나보내게 되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아내 마리아 안나를 동행하게 했지만, 그의 아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지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뿐이라는 것을 레오폴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먼 길을 떠난 아들에 대한 노파심이 가득하다. 간혹 자신을 ‘늙고 병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함께 여행하지 못한 아쉬움을 편지 속에 토로한다.

볼프강 모차르트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난 1777년 9월부터 1779년 1월 사이에 가족들은 약 15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를 크게 뮌헨 체류 시기, 육스부르크 체류 시기, 만하임 체류 시기, 그리고 파리 체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뮌헨에서 주고받은 편지 약 11/12통, 육스부르크에서 주고받은 편지 약 12/13통, 만하임에서 주고받은 편지 약 70여통 그리고 파리와 귀향길에 주고받은 편지가 약 60여 통이 남아 있다.⁶⁾

5)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정보는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6)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1841년에 설립된 모차르트 연구기관인 모차르테움(Internationale Stiftung Mozarteum)은 모차르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연구한다. 그리고 음악원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모차르트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모차르테움에서 공식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의하면, 모차르트와 편지와 관련된 자료들은 약 1000여 건이 넘는다. 디지털로 완성된 수많은 자료들은 모차르트 연구를 한결 수월하게 해주고 있다.



(그림1)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편지(BD347, 뮌헨에서 보낸 편지)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아옥스부르크 체류 시기의 편지 중 그 일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옥스부르크 시기의 편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아옥스부르크는 볼프강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의 고향이다. 이 도시는 모차르트의 가족들의 뿌리이자 고향이며, 이곳에는 모차르트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옥스부르크는 뮌헨이나 만하임 그리고 파리와 달리 귀족들이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었다. 즉 아옥스부르크는 왕이나 영주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18세기 음악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많다.

| 편지번호 | 보낸 사람 | 보낸 날짜 | 보낸 장소 | 받는 사람 | 비고 |
|--------|--------|-----------------|--------|--------|--------|
| BD 346 | 레오폴트 | 1777.10.09. | 잘츠부르크 | 볼프강 | |
| BD 348 | 레오폴트 | 1777.10.12./13. | 잘츠부르크 | 볼프강 | |
| BD 349 | 마리아 안나 | 1777.10.14. | 아옥스부르크 | 레오폴트 | |
| BD 350 | 레오폴트 | 1777.10.15. | 잘츠부르크 | 볼프강 | |
| BD 351 | 볼프강 | 1777.10.16./17. | 아옥스부르크 | 레오폴트 | |
| BD 352 | 볼프강 | 1777.10.17. | 아옥스부르크 | 레오폴트 | |
| BD 353 | 레오폴트 | 1777.10.18. | 잘츠부르크 | 볼프강 | |
| BD 354 | 레오폴트 | 1777.10.23. | 잘츠부르크 | 마리아 안나 | |
| BD 355 | 볼프강 | 1777.10.23./25. | 아옥스부르크 | 레오폴트 | |
| BD 356 | 볼프강 | 1777.10.25. | 아옥스부르크 | 테클라 | 사촌누이동생 |
| BD 357 | 난네를 | 1777.10.25. | 잘츠부르크 | 볼프강 | |
| BD 358 | 레오폴트 | 1777.10.29./30. | 잘츠부르크 | 볼프강 | |

(표1) 1777년 아옥스부르크 체류시기 편지 목록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총 12개의 편지 중에서 7통이 잘츠부르크에서 발신되었으며, 편지가 오고 가는 기간으로 인해 편지 날짜가 겹치기도 한다. 약 20일 머무는 일정에서 오고 간 편지가 12통이니, 이틀에 한 번 이상씩 편지를 보낸 것이다.⁷⁾ 나머지 5통 중에서 1통은 아육스부르크에 있는 사촌누이 동생 마리아 안나 테클라에게 보냈으므로, 볼프강이 아버지에게 답장한 것은 4통이다. 이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레오폴트는 무엇인가 아들 볼프강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물론 이번 여행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레오폴트가 함께하지 못하고 아내 마리아 안나가 동행을 했다. 그래서 레오폴트는 아들에 대한 염려와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수많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다. 18세기 중엽까지 독일국민들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을 쓰거나 읽을 수 없었다. 이런 시기에 모차르트 가족들은 편지로 자신들의 안부와 생각 그리고 신념을 잘 표현할 정도로 높은 교육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레오폴트의 편지 BD346(1777년 10월 9일)과 BD348(1777년 10월 12/13일)의 편지를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다. 이 편지를 선택한 이유는 이 두 개의 편지 속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향후 일정의 윤곽이 나타나 있고, 이 편지와 관련된 답장이 지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 번역된 1777년 10월 14일 자 모차르트의 편지(BD349)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레오폴트의 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⁸⁾

본 논문에 사용하는 편지번호는 모차르테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과 번호(Bauer/Deutsch)를 따랐으며, 원본도 모차르테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⁹⁾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논문이나 기타 문헌을 많이 참고하지 못하고, 편지 원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정리했다.

3.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편지분석

18세기 편지 또는 수필이나 평론 등의 글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대부분 첫 인사와 끝 인사말 사이에 주요 본문 내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본문 내용의 구성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것들,

7) 18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편지를 주고받은 예가 없다. 요즘 사람들이 마치 이메일을 보내듯이 모차르트 가족들은 자주 편지를 보내 서로의 안부를 전했다.

8) 모차르트는 자신의 편지 BD349에 아육스부르크 시장을 만난 이야기와 피아노 제작자 슈타인 씨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적고 있다.

9) 모차르테움 공식 홈페이지 dme.moarteum.at [2019년 6월 8일 접속]

칭찬 또는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뒤이어 비판이나 평론과 조언 등을 적는다. 레오폴트의 편지도 이런 전형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다. 먼저 가족들의 안부를 전하고, 자신의 근황을 설명하고, 이어 잘츠부르크의 상황을 적는다. 그 다음에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는다. 그리고 다시 안부와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맺는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편지형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레오폴트와 모차르트의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3.1. BD346(1777년 10월 9일) 레오폴트의 편지 분석¹⁰⁾

아욱스부르크로 보낸 편지에는 레오폴트의 인간적인 모습과 전략적인 모습이 모두 담겨 있다. 집을 떠나 먼 여행을 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면 레오폴트가 인간적으로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졌음을 느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으며, 정보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모습은 이후 볼프강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1.1. 아욱스부르크로 편지를 보낸 이유

레오폴트는 1777년 10월 9일 편지(BD346)를 자신의 고향 아욱스부르크로 보냈다. 그 이유는 볼프강 일행이 이미 뮌헨을 떠나 아욱스부르크에 도착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¹¹⁾ 레오폴트는 자신의 편지에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매우 꼼꼼한 지시사항을 적고 있다.

3.1.2. 전략적인 조언: 아들에게 일정과 만날 사람을 알려줌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아욱스부르크의 피아노 제작자인 슈타인(Stein)¹²⁾씨를 만나라고 볼프강에게 말하고 있다. 레오폴트는 직접 슈타인 씨에게 보낼 편지를 동봉해서 볼프강에게 전하게 했다. 이 편지의 주요 내용은 볼프강이 아욱스부르크에서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레오폴트의 폭넓은 인맥이다. 그는 각 도시의 저명인사, 음악가 그리고 악기제작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는 볼프강에게 어떻게 슈타인 씨와 대화할 것 인가에

10) Leopold Mozart an Wolfgang Amadé Mozart in Augsburg, Salzburg, 9. Oktober 1777(BD 346)

11) 볼프강 일행은 10월 11일까지 뮌헨에 있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나중에 아욱스부르크에 도착해서 받게 된다.

12) Göthel, Folker, "Stein, Familie". In: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Bd. 12, herausgegeben von Friedrich Blume, 1230-1234, Kassel; Basel; London: Deutsche Taschenbuch Verlag, 1989).

대해 조언하면서, 슈타인 씨의 피아노와 오르간이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다음 글에서 레오폴트가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인지 잘 나타난다.

“네가 슈타인 씨와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너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게라(Gera) 악기에 대해 말을 하지 마라. 그는 프리데리키(Friderici) 씨에 대한 경쟁심이 강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면, 육군장교 프랑크(Prank) 백작이 갑자기 넘어져서 다친 이야기를 하고, 그가 잘츠부르크를 떠나게 되면서, 그의 악기를 내가 넘겨받게 되었다고 말해라. 그때 당시 너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해라.”¹³⁾

위의 글을 통해 보면, 레오폴트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어떤 대화가 도움이 안 되는지를 파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도로 배려심이 많거나, 아니면 고도로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이 대화에서 혹시 불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그 대처방법을 적고 있다. 이것에 대해 너무 과도한 아버지의 간섭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레오폴트는 온통 집을 떠난 볼프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3.1.3.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모습과 잘츠부르크 소식

레오폴트는 잘츠부르크의 소식을 미주알고주알 아들에게 전한다. 그중에는 대주교 히에로니무스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레오폴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게 고향 소식을 알려주면서 지속적인 교감과 공통된 감정을 유지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들이 작곡할 때 필요한 악보를 보낼 정도로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편지에 나타난다.

3.1.4. 폭넓은 정보: 아욱스부르크 신문 기사와 연주회에 대한 조언

레오폴트는 편지에서 아욱스부르크에서 있었던 지난 음악회를 이야기하며, 볼프강에게 한두 차례의 음악회를 개최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다만, 아욱스부르크에서 연주할 기회가 없다면, 오래 머물지 말고 즉시 떠나라고 적고 있다.

13) “Wenn du mit h: Stein sprichst, so mußt du alle Gelegenheit vermeiden vom unsern Instrumenten von Gera eine Meldung zu machen, dann er ist Eyfersichig mit dem Friderici, und wäre der Sache nicht auszuweichen, so sagst du, ich hätte die Instrumenten vom Obrist

를 내린 전형적인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고, 이런 그의 사고체계와 생활 방식은 그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2. 다정다감한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잘츠부르크와 강아지에 대한 소식

레오폴트는 자신의 편지에 잘츠부르크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마도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는 가족들의 향수병을 달래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는 잘츠부르크의 날씨가 좋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며, 강아지가 볼프강과 부인 안나 마리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문 앞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적고 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물씬 풍기는 편지 내용이다. 그리고 그는 난네를(Nannerl)¹⁵⁾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자세히 적어 보냈다.

3.2.3. 일정이 지연된 것에 대한 추궁과 안타까움

레오폴트는 볼프강이 보낸 편지(BD 347, 1777년 10월 11일자)를 받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장한다. 문법도 안 맞을 정도로 레오폴트는 마음이 상한 것처럼 보인다. 편지 내용을 일부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10월 13일: 우리는 너의 편지를 받았다. I: 아육스부르크가 아니구나: 우리가 원했었는데 :!, 여전히 뮌헨에서 보냈구나, 너희는 11일, 토요일에 아육스부르크로 떠났어야 했다 : 그런데 편지에 11일이라고 적혀있구나, 이 말은 10일 밤까지 너희는 지체했다는 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나. 단 한 폰도 별지 못하면서 어째서 그렇게 뮌헨에 오래 머무른 것이냐. 거의 3주를 말이다.[...]”¹⁶⁾

위 편지만 보면 너무 매몰찬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볼프강은 뮌헨 궁정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결국 실패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레오폴트는 볼프강에게 빨리 뮌헨을 떠나 파리로 출발할 것을 여러 차례 말을 했다. 하지만 이런 레오폴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15) Nannerl. 본명은 Maria Anna Walburga Ignatia Mozart(1751-1829)이다. 볼프강 아마테우스 모차르트의 누나로서, 피아노 연주와 성악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난네르와 볼프강은 편지를 통해 작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다.

16) “den 13 octob: Wir haben dein Scheiben I: nicht aus Augsp: wie wir hofften :! sondern abermahl aus München erhalten, wo es heist: daß ihr den 11ten, das wäre Samstags nach Augsp: gehen werdet: und aus verstopf habt ihr beyde den Brief vom 11ten datiert, das wird heissen sollen den 10ten abends etc: um des Himmel willen, wenn ihr in München so lange geblieben, wo doch gar kein kreuzer Einnahme zu hoffen, und zwar fast 3 wochen, [...]”

볼프강의 일정은 자꾸 지연되어 갔다. 애초의 이들 계획은 한 도시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일자리가 있으면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연주회를 열어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모차르트 가족들은 유럽 각지를 돌아다녔던 것이었다. 그런데 뮌헨에서 3주 동안 “단 한푼(kein Kreuz)”도 벌지 못한 상태로 있었으니, 레오폴트는 마음이 급할수 밖에 없었다.

3.3.4. 폭넓은 정보력: 주요 귀족들의 일정과 취향을 파악하다

흥미로운 것은 레오폴트의 폭넓은 인맥과 정보력이다. 그는 주변 귀족들의 일정과 취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편지에서 택시(Taxi)의 후작이 지금 레겐스부르크(Regensburg)에 있지 않고 디칭엔(Dischingen)에 있다고 전하며, 볼프강에게 이런 내용을 일정에 참고하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레겐스부르크의 택시 후작이 만령절¹⁷⁾이 끝나면 돌아간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나우베르트(Donauwerth)에 있는 유명한 제국수도원 카이저스하임(Kaysersheim)의 고위 성직자가 명인연주자(Virtuoso)를 좋아하는 음악애호가이니 참고하라고 한다. 또한 만하임(Mannheim)에서 오페라 열리는데, 이곳에 지역 영주들이 많이 모이니 가능하면 이곳에서 그들을 만나라고 조언하고 있다.

레오폴트는 몸은 잘츠부르크에 있지만, 온통 정신은 아들의 여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의 다양한 정보와 귀족들의 움직임과 취향을 파악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3.2.5. 전략적 사고: 여행 경유지를 조언하다

레오폴트는 이미 여러 차례 유럽을 가족들과 함께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마치 머리에 지도라도 있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아우스부르크에서 만하임으로 가는 빠른 길을 안내하면서, 거리가 지 계산하는 치밀함을 보인다. 그는 뷔르츠부르크(Würzburg)를 경유해서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를 지나 만하임, 그리고 다름슈타트(Darmstadt)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그 다음에 마인츠(Mainz)와 코블렌츠(Koblenz)를 경유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Paris)였다.

3.2.6. 계몽주의 영향: 신분 차별에 대한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생각

이 편지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Hamm)의 군행정관 딸에 대한 것이다. 레오폴트는 편지에서 “너의 어머니가 함의 군 행정관 딸에 대해서 썼더구나” 하면서, 그들에

17) 카톨릭 교회력으로 11월 1일이 만령절(Alle Heiligkeitag)이다.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매우 절약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원래 잘 (처)먹는 사람들이다 (Erstlich wist ihr, daß wir sehr sparsamm leben: und diese Leute sind gewohnt gut zu fressen.)”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신분 차별에 대한 레오폴트의 적대감이다. 레오폴트는 여기에 ‘fress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어에서 ‘먹다’는 동사는 ‘essen’을 사용하고, ‘fressen’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동물이) 먹다, (사람이) 게걸스럽게 먹다”의 의미이다. 물론 시대적으로 단어 사용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레오폴트가 이런 시각, 즉 신분이나 그로 인한 차별에 대해 불편했다면,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볼프강 모차르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교육

모차르트 가족들의 편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놀라운 점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전문성과 인문학적 소양이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 유럽은 문맹률이 매우 높았다. 일반 주민들은 공공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 일반 학교나 김나지움(Gymnasium, 인문계 학교)은 소수의 시민들이 진학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모차르트 가족들은 모두 읽고 쓰기는 물론, 어머니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그리고 라틴어까지 읽고 쓸 정도로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미 잘 알려졌듯이 아버지 레오폴트만이 대학교에서 법학을 수학했으며, 그의 딸 난네를이나 아들 볼프강은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과 같은 정도의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게 된 것은 레오폴트의 교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8세기 음악가 집안에서 가족 간에 음악을 배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비근한 예로, 만하임에서 활동하던 음악가들은 대를 이어서 음악가가 되었고, 그들은 음악을 가업으로 삼았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어린 시절 볼프강과 그의 누나 난네를은 아버지에게 음악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레오폴트가 다른 음악가 집안과 다른 것은 그가 바이올린 연주가이면서 이론가였다는 것이다. 즉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의 교육자였다는 것이다.¹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레오폴트는 볼프강과 난네를에게 음악과 함께 인문학적 교양과 다양한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런 레오폴트의 교육을 바탕으로

18) 음악 교육자로서의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역할은 독립된 연구 주제로서 다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난네들은 오랫동안 잘츠부르크 지역에서 훌륭한 음악 교육자로 활동했다. 그리고 볼프강 모차르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과의 흔적은 레오폴트의 교육과 보살핌 그리고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5. 편지에 나타난 가족들의 음악 대화

일반적으로 묘사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모습은 경쾌하고 밝다. 그리고 천재성으로 묘사되는 경박함과 가벼움이 그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모차르트 스스로도 자신을 유쾌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러한 유쾌함과 자기 분야의 전문적 식견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흥미롭기도 거의 모든 편지에서 가족들은 음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는다. 한 예로서 ‘템포’와 학생의 ‘음악성’에 대한 레오폴트와 볼프강의 생각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 음악 교육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레오폴트와의 편지에서 볼프강은 음악에 대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편지 왕래와 대화를 통해 수준 높은 교양과 전문성이 길러진 것이다.

5.1. 청음과 템포의 중요성

레오폴트는 10월 12/13일자 편지(BD 348)에서 함의 군행정관의 딸에 대한 음악 교육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약 그 아이가 음악성이 없다면,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손의 나쁜 모양이나 위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청음이 안되면, ‘템포’를 기대할 수 없다. 너는 이런 관점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몇 마디를 간단히 연주해주고, 이어 그녀가 동일한 템포(a tempo)로 연주를 할 수 있는지 보아라. 그래서 그녀가 2마디를 이해하고 템포를 지키는지 알아보거라.”

위의 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오폴트는 음악성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청음과 템포에 대한 감각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5.2. 연주법과 템포 그리고 표정

볼프강은 아버지에게 보낸 10월 23/24일자 편지(BD 355)에서 슈타인씨의 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슈타인 씨의 딸은 당시 8살 반의 어린 나이지만 볼프강은 이 소녀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소녀의 연주에 대한 묘사이다.

“이 아이는 절대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에 가서 앉습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얼굴을 찡그리거나 할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랍니다. 눈을 부릅뜨기도 하고, 빙긋이 웃기도 합니다. 같은 악구가 두 번 나오면 두 번째는 천천히 연주하고, 세 번째가 되면 한층 더 느리게 칩니다. [...] 무엇이든 오직 암보로 배울 뿐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재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템포를 몸에 익힐 도리가 없겠죠. 손을 무겁게 하는 데 열중하고 있으니깐요. 어렸을 때부터 템포를 따지지 않고 치는데 열심이었으니깐요. 가장 어려운 일,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일, 즉 템포에 익숙해지는 일은 결코 없겠죠.”¹⁹⁾

이어서 볼프강은 자신의 연주법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저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하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표정이 풍부하게 칩니다.”²⁰⁾

이 편지를 통해 당시 남부 독일의 피아니스트 베케의 교육법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볼프강은 이런 교육법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그 소녀의 선생은 음악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 표정을 만들고 몸짓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연주법은 현대에서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에 대해 볼프강은 그런 과장된 행동의 불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6. 모차르트 가족들의 편지 연구의 중요성

모차르트 가족들은 역사상 보기 드물게 많은 편지를 썼다. 이것은 그들이 많은 연주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겠지만, 당시 종이값이나 우편 비용 등이 적지 않게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소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편지마다 느껴지는 가족들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는 한편의 장편 드라마와 같다. 거기에는 각 도시의 특징이 서술되어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특징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편지에는 레오폴트의 박식함과 전략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정신적 멘토로서 아들에게 전해지는 무한한 정보가 담겨 있다. 물론 이런 편지는 긍정적으로는 볼프강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는 행동을 제약하기도 했다. 매우 다면적인 얼굴의 레오폴트와 볼프강의 편지에는 당시 음

19) Mozart, Wolfgang Amadeus. 『모차르트의 편지』. 김유동 옮김, (서울: 서커스출판상회, 2008), 65-66.

20) 모차르트, 위의 책, 66.

악의 흐름이나 교육 현장, 악기제작, 작곡기법 등의 정보가 무한정 들어있다. 물론 이들의 편지 연구는 이미 서구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가 국내에 소개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 학자의 독자적인 해석과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여전히 의미미하다. 이미 외국에서 이루진 연구결과를 도용하거나 표절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더는 연구가 필요 없다”라고 확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남의 집 곡간에 황금이 넘쳐난다고 해도, 자기 창고가 비어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7. 나가면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비해 음악사에서 오랫동안 왜곡된 대표적인 음악가 중 한 명이다. 그는 1719년 아옥스부르크에서 태어나 1787년 잘츠부르크에서 사망했다. 그는 잘츠부르크의 궁정부악장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그가 1756년에 출판한 바이올린 교본은 독일어권뿐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심지어 러시아어로 번역될 정도로 유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권위 있는 음악 교사로서 잘츠부르크와 뮌헨을 오가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는 교향곡과 교회음악 그리고 협주곡 등을 작곡했다. 이 정도면 18세기 살았던 많은 음악가 중 제법 큰 명성과 권위를 가지고 성공한 음악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그의 아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뒷자리에 서 있다. 더욱이 레오폴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반론을 주장하는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의 편지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분석해보면, 그가 18세기에도 보기 드물 정도의 학식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레오폴트가 21세기에 살았다면, 거대한 음악 기획사를 운영할 정도로 전문적이면서 전략적이고, 인맥 관리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물론 한두 개의 편지로 한 인간의 전체모습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에서 상당히 홀대를 받는 음악가²¹⁾에 대한 연구나 생애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해 본다. 레오폴트 모습은 매우 다면적이다. 그는 매우 다정한 아버지이자 엄격한 아버지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들과 가족을 돌보는 섬세함이 있었고, 유럽 지도가 마치 머릿속에 있는 듯 각 도시를 꿰고 있었고, 유럽 귀족들의 취향을 손바닥 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력이 있었다.

21) 18세기 음악가들이 국내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어권 지역의 음악가들 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많은 음악가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8세기 음악은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탄생시킨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

레오폴트의 음악적 능력과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음악 경영적 사고방식 등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도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뿐 아니라, 18세기 음악사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편지 연구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검색어

레오폴트 모차르트(Leopold Mozart),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편지(Letters), 아욱스부르크(Augsburg), 잘츠부르크(Salzburg), 템포(Tempo), 18세기 음악(18th-century Music)

참고문헌

- Brockhaus Riemann. *Musiklexikon*. Herausgegeben von Carl Dahlhaus und Hans Heinrich Eggebrecht, Bd. 3, Mainz: Schott Musik International, 1995.
- Eisen, Cliff. Art. "(Johann Georg) Leopold Mozart."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Second Edition, Edited by Stanley Sadie, Executive Editor John Tyrrel, Vol. 17: 270-275,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2001.
- Göthel, Folker. "Stein, Familie". In: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Allgemeine Enzyklopädie der Musik*, Bd. 12, herausgegeben von Friedrich Blume, 1230-1234, Kassel; Basel; London: Deutsche Taschenbuch Verlag, 1989.
- Mozart, Leopold.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연주법』 (Gründliche Violinschule), 최윤애, 박초연 옮김. 서울: 예술, 2010.
- Mozart, Wolfgang Amadeus. 모차르트의 편지. 김유동 옮김. 서울: 서커스출판상회, 2008.
- Schmid, Ernst Fritz. Art. "Mozart, Johann Georg Leopold", in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herausgegeben von Friedrich Blume, Bd9: 692-698, Kassel/ Basel/ London: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Bärenreiter-Verlag, 1989.

모차르트의 편지

Leopold Mozart an Wolfgang Amadé Mozart in Augsburg. Salzburg, 9. Oktober 1777(BD 346)

Leopold Mozart an Wolfgang Amadé Mozart in Augsburg. Salzburg, 12. und 13. Oktober 1777(BD 348)

Wolfgang Amadé Mozart an Leopold Mozart in Salzburg, Augsburg, 23. bis 25. Oktober 1777(BD 355)

인터넷자료

모차르테움. <http://dme.mozarteum.at/DME/briefe/>

Study about Leopold Mozart's Letters to Augsburg – BD346 and BD348–

Seong Liul Lee

Leopold Mozart was born 1719 in Augsburg and died 1787 in Salzburg. He was an violinist, composer, and vice-capellmeister of Salzburger Court Orchestra. He was a music-theorist and writer about music. But now he is known as only a father of Wolfgang Amadeus Mozart. His capability and quality of music and his personalty have been underestimated and negative. Yet, throughout his letters to his son Wolfgang Amadeus Mozart, he seems to have been an excellent music expert, educator, good father and Wolfgang's spiritual mentor. The Study of letters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e studies about Wolfgang Mozart but the studies about music in the 18th century as well.

아욱스부르크로 보낸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편지 분석연구 BD 346(1777년 10월 9일)과 BD 348(1777년 10월 12/13일) -

이성률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1719년 독일 아욱스부르크에서 태어나 1789년 잘츠부르크에서 사망한 음악가이다.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이며 작곡가로 잘츠부르크 궁정악단의 궁정음악부감독(Vice-capellmeister)를 역임하고, 음악이론가이자 음악교육자로서 성공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음악사에서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한 전문성과 가치가 심하게 폄하되어 있고, 심지어는 몇몇 미디어와 영화 등의 비전문적 접근으로 인해 그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마저 훼손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아욱스부르크에 있는 볼프강 모차르트에게 보낸 편지 BD 346(1777년 10월 9일)과 BD 348(1777년 10월 12/13일)을 분석 연구하였다. 이 편지 속에는 레오폴트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18세기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모차르트 가족들이 주고받은 편지에는 18세기 음악과 18세기 사회상을 이해하고, 볼프강 모차르트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촉구된다.

논문투고일자: 2019년 11월 1일

심사일자: 2019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24일